



5면

전북대,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음 12월 9일) 제2940호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전북도청 탄소산업전시관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부 국가균형발전 차원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송하진 도지사, 전북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에 지역 현안·정책과제 해결 요청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현안과 정책과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박병석 의장이 9월과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현안 간담회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이용수 정책 수석도 함께했다.

송하진 지사는 “임인년 새해 전북도를 방문해서 귀중한 소통 시간을 갖게 돼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민생경제 악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송 지사는 혁신과 선점으로 새롭게 산업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생태관광산업 발전전략을 꼼꼼히 소개했다.

또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별자치도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전북특화 금융산업 육성

지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계 지원,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역 당면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도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관심을 부탁했다.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4개 메가시티와 동등한 예타면제, SOC관련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어, 전북특화 금융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명제 하에 금융산업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시급성을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인센티브 법제화도 건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사위와 기재위(조세소위)에 계류중으로 송 지사는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호랑이 해를 맞아 강인한 마음과 웅망한 기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박병석 의장 방문으로 지역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북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북도에 당면한 시급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한편, 전북도청 일정을 마친 박병석 의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고 미래 전북탄소성장동력 현황을 점검했다. /유호상 기자

## “감동·희망 순창, 군민 행복 순창”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 순창군수 출마 선언  
장류산업 기반 재검토·일자리 지원 등 약속

“관광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행복할 순창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대한민국 대전환과 더불어 순창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순창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부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동과 희망의 순창,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최영일이 만들겠습니다”라며 출마표를 던졌다.

최 부의장은 “우리 순창은 지금 쇠퇴진행형 도시이자 지역의 소멸이라는 참담한 위기까지 고민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산업기반의 이탈,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열과 편 가르기, 독식과 배척 등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겠다”며 “오랫동안 쌓아왔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순창을 확 바꿀보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파부에 와 닿는 정책을 현재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사위와 기재위(조세소위)에 계류중으로 송 지사는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제를 약속했다.

또한, “지역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권력에 유린당하지 않는 순창, 살아 숨 쉬는 순창 주민을 떠받드는 순창”을 만들어 순창이가장 먼저 소멸위기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군민에게 약속했다.

최 부의장은 먼저, “무너진 장류산업 기반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반드시 장류의 고장 순창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의 기업들이 탈환한 경쟁력이 발휘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양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일자리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 기업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기반소득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마을택시를 대폭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환경을 적극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지원책 마련과 환경을 조성해 비축산농가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속작목 발굴·육성, 떠나지 않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귀농·귀촌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경천과 양지천의 명품친수공간과 순창군의 익숙한 문화관광자원들을 상품화하고, 마케팅해 체류형 대표관광지를 조성하고, 소리의 고장 순창답게 사다찌는 소리 등 소리문화를 회복해 옛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군민 일상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 3층(공감, 체감, 만족감)의 ‘소통의 공간’ 역할을 충실히 해 작은학교 살리기와 순창형 돌봄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대응 등 도농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 적발

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실테라필 성분 기준치 이상

전북도 특별사범경찰(이하 특사경)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

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그 결과, 시가 2억8,100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억3,457개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고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한 결과, 7개 업소에서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 불법의약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100mg

300mg 등 다양하게 표시돼 겉보기에도 가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 결과 실테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불법약품 등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함으로써 송치 예정이다. 압수한 PC,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2022

새

새로운 것을 꿈꾸고 시작하는

새

새로운 꿈에 도전하며 내딛는

날

길

여러분의 모든 그 날과 그 길을 응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